

육아관련 웹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영어어머니의 요구 분석

김 정 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증가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은 개인이 온라인 건강정보와 지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를 촉진하여 간호대상자나 간호사가 삶이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건강전달은 더 이상 물리적인 근접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World Wide Web (WWW)과 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정보와 지지를 찾고자 하는 행위와 건강정보 교환에의 접근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LaCourriere, 2001).

2001년 12월 국내 인터넷사용 인구를 조사한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의 통계보고서(www.nic.or.kr)에 따르면, 국내 7세 이상 인터넷 이용 인구는 전 국민의 51.3%에 해당되며 특히 가정에서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상회한다고 하였다. 여성 네티즌들도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여성인구의 약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주도하는 계층은 젊은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

20대와 30대 여성들이었다. 또한 주부의 경우 52.2%가 생활정보와 자녀교육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하였다(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2). 미국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68%가 인터넷에서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며 인터넷은 이러한 정보를 찾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지를 얻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Lorig et al., 2002).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부모-자녀건강간호 분야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관련 지식을 얻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의 유입이 가족, 친구, 이웃 등 off line 뿐만 아니라 PC통신, 인터넷과 같은 on line으로까지 확대되어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의료전문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e-mail이나 홈페이지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새로이 등장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세대 어머니들은 서로의 양육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받는다(이경혜, 2001).

이와 같은 인터넷의 활용과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사이트 또한 증가하고

* 경북대학 간호과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의 양육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이트는 대학이나 병원, 아동 전문 잡지, 아동관련 식품, 유아용품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만든 사이트가 대부분으로 선행연구를 통한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준거를 통해 고찰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육아관련 45개의 사이트를 분석한 이자형 등(2001)도 많은 경우가 비전문가에 의해 육아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고찰과 규제가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영유아를 둔 어머니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며 교육요구도가 높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어머니의 양육요구도를 분석한 국내논문으로는 저출생 체중이나 신생아, 영아의 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도(조결자, 정연, 이군자, 1997; 한경자, 1997), 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도(심영숙, 서영미, 권인수, 1998), 신생아기부터 학령기까지의 아이를 둔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유경희, 2000)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육아정보나 아동 건강정보를 분석한 연구(이자형 등, 2001; 하유정 등, 2001)외에는 인터넷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육아정보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역할이 이루어지는 초기인 신생아기 및 영아기 육아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인터넷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나 지지,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머니 역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 후 1년 미만의 신생아기 및 영아기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넷의 육아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내용을 조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머니역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II. 문헌고찰

아기를 돌보면서 수시로 당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부모역할은 부모들에게 부담감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영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육아와 관련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결자 등, 1997). 또한 3~12개월 사이의 첫 아기가 있는 14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이혜란(1984)의 연구를 보면 81.4%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7.9%는 매우 많은 것으로, 10.7%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답한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Mckim(1987)은 184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본인, 남편, 아기에게 있었던 문제를 조사한 결과 아기질병, 아기영양, 아기울음, 필요한 정보 구하기, 부모문제, 선천적 기형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아기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컸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보건소와 소아과에 입원 및 외래를 방문한 657명의 신생아부터 학령기까지 아동의 육아에 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유경희(2000)의 연구를 보면, 신생아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는 다른 연령기의 아동보다 매우 높았으며 예방차원의 문제보다는

현재 나타난 문제에 더 교육받기를 원했고 교육을 원하는 정보의 우선순위는 부모자녀 애착, 아기의 경기, 감기, 영양, 발열 순이었다.

영아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지지내용을 살펴보면, 초산모 88명의 산후 6개월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요구를 조사한 장순복 등(1999)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별로 신생아의 성격, 배변, 수면양상, 제대관리, 행동의 의미, 예방접종, 울음의 특성 순으로 요구내용이 나타났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상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그 외 유인물(32%), 교육(28%), 가정방문(5%)의 순으로 나타나 상담이 지지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자형(1996)도 초산모가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모유수유, 목욕, 울음과악, 아기상태 파악 등을 어려워한다고 하였고, 그 외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과 관리, 자녀의 성장과 발달,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요구도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1994; 한경자, 1997).

송지호 등(2001)은 전화를 통하여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는 육아문제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8,261부의 상담기록지를 통한 분석에서 어머니들은 주로 첫아이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상담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빠른 판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신체적인 이상징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유 및 영양, 아동의 신체발달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염려행동이나 성장발달, 이상징후들에서 신생아기인 0~1개월 미만에서 연령과 맞지 않는 염려 및 걱정을 함으로써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상담이 중요함으로 제안한 바 있다.

초산모와 경산모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요구가 다를 수 있는데, Fenwick, Barclay, Schmied(2001)는 산 후 7주된 산모 1161명(초산모 540명, 경산모 621명)에게 산 후 그들이 필요로 하

는 정보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산모가 자기돌보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한 반면 초산모는 아기 돌보기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요구하여 연구대상의 87%를 차지했고 산모들이 아기 돌보기와 관련하여 요구한 정보로는 아이의 질환, 성장발달, 아기 달래기 순이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산전교육에의 참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 교육정도, 사회적 지지가 초산모의 정보요구와 관련이 있었고 특히 사회적 지지가 낮은 초산모의 경우 정보를 더 요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육아와 관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인터넷 사용의 차이도 함께 비교해 보고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어머니 중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어머니로서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어머니 22명과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이키우기 동호회 회원 중 온라인 설문지에 응해 준 어머니 175명이다.

총 197명의 응답자 중 임부 9명, 생 후 1년 이 넘는 응답자 31명을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157명이다.

3. 연구도구

인터넷의 육아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총 문항수는 15문항으로 선택형 12문항과 개방형 질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조건에 맞는 5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는 프로그램화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1) off-line 조사

2002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일개 병원 소아과에 방문한 생 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두었고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어머니를 직접 면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on-line 조사

200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회원수 7000여명의 인터넷 동호회 “아이키우기”의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프로그램된 설문지를 공지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 육아사이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표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157)

특 성	구 분	빈 도(%)		
		전 체	on - line	off - line
나 이	20세 이하	10(6.4)	9(6.7)	1(4.5)
	21 - 25	50(31.8)	42(31.0)	8(36.4)
	26 - 30	83(53.9)	75(55.6)	8(36.4)
	31 - 35	11(7.0)	7(5.2)	4(18.2)
	36세 이상	1(0.6)	0(0.0)	1(4.5)
	무응답	2(1.3)	2(1.5)	0(0.0)
학 력	고졸	57(36.3)	46(34.1)	11(50.0)
	대졸	88(56.1)	81(60.0)	7(31.8)
	대학원 재학 이상	12(7.6)	8(5.9)	4(18.2)
직 업	있다	47(29.9)	37(27.4)	10(45.5)
	없다	110(70.1)	98(42.6)	12(54.5)
자녀의 연령	1개월 미만	26(16.6)	8(5.9)	18(81.8)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5(22.3)	33(24.9)	2(9.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4(28.0)	42(31.1)	2(9.1)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30(19.1)	30(22.2)	0(0.0)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2(14.0)	22(16.3)	0(0.0)

〈표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157)

특 성	구 분	빈 도(%)		
		전 체	on - line	off - line
자녀의 성별	남	88(56.1)	72(53.3)	16(72.7)
	여	69(43.9)	63(46.7)	6(27.3)
분만형태	자연분만	110(70.1)	96(71.1)	14(63.6)
	제왕절개	47(29.9)	39(28.9)	8(36.4)
아기 돌보기 도움 (아버지 제외)	시어머니	29(18.5)	25(18.5)	4(18.2)
	친정어머니	58(36.9)	48(35.6)	10(45.5)
	형제자매	12(7.6)	8(5.9)	4(18.2)
	없다	46(29.3)	43(31.9)	3(13.6)
	비용지불 무응답	11(7.0) 1(0.6)	10(7.4) 1(0.7)	1(4.5) 0(0.0)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26세에서 30세까지가 83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젊은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30세 이하가 14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92.1%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모두 고졸 이상이었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100명(63.7%)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상당수가 직업이 없었으며(70.1%) 자녀의 연령은 신생아부터 3개월 단위로 나누었을 때 고루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8명으로 절반을 약간 넘었으며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을 한 경우가 110명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하였다. 그 외 아기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아기 아버지를 제외할 경우 친정어머니가 58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움없이 스스로 아기를 돌본다는 경우가 46명(29.3%)으로 많았는데, 이는 직업이 없는 주부가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특성

연구대상자의 인터넷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

여 본 결과 분만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인터넷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38.2%(60명)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체 대상자 중 133명(84.7%)이 산욕기가 끝나기 이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n-line 대상자의 경우가 off-line 대상자보다 산욕기가 끝나기 전에 인터넷을 시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터넷 사용 경력은 on-line 대상자의 경우는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off-line 대상자의 경우는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용 빈도는 on-line과 off-line에서 큰 차이를 보여 on-line의 경우 주 5회 이상이 69.6%인 반면 off-line의 경우는 주 1-2회가 45.5%이었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내외(66.2%) 이었다.

육아관련 사이트에서 유용했던 내용을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on-line과 off-line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식이와 영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24.4%) 그 다음으로 성장과 발달(21.1%), 부모간의 지지(16.8%)의 순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 (N=157)

특 성	구 분	빈 도(%)		
		전체	on-line	off-line
분만 후 인터넷 시작 시기	분만 직후-2주 미만	36(22.9)	33(24.4)	3(13.6)
	2주-4주	60(38.2)	54(40.0)	6(27.3)
	4주-6주	37(23.6)	32(23.7)	5(22.7)
	6주-8주	10(6.4)	8(5.9)	2(9.1)
	분만 8주 이후	7(4.5)	7(5.2)	0(0.0)
	무응답	7(4.5)	1(0.7)	6(27.3)
인터넷 사용 경력	1년 미만	5(3.2)	3(2.2)	2(9.1)
	1년 이상-3년 미만	45(28.7)	36(26.7)	9(40.9)
	3년 이상-5년 미만	57(36.3)	51(37.8)	6(27.3)
	5년 이상	49(31.2)	44(32.6)	5(22.1)
	무응답	1(0.6)	1(0.7)	0(0.0)
인터넷 사용 빈도	주 5회 이상	96(61.1)	94(69.6)	2(9.1)
	주 3-4회	31(19.7)	27(20.0)	4(18.2)
	주 1-2회	18(11.5)	8(5.9)	10(45.5)
	월 3회 이하	7(4.5)	3(2.2)	4(18.2)
	무응답	5(3.2)	3(2.2)	2(9.1)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14(8.9)	7(5.2)	7(31.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04(66.2)	92(68.1)	12(54.5)
	2시간 이상	38(24.2)	35(25.9)	3(13.6)
	무응답	1(0.6)	1(0.7)	0(0.0)
유용했던 내용 (중복 선택) 303	식이와 영양	74(24.4)	62(23.7)	12(29.3)
	아기 돌보는 방법	40(13.2)	37(14.1)	3(7.3)
	성장과 발달	64(21.1)	51(19.5)	13(31.7)
	건강유지 증진	35(11.6)	27(10.3)	8(19.5)
	부모간의 지지	51(16.8)	47(17.9)	4(9.8)
	상 담	23(7.6)	22(8.4)	1(2.4)
	무응답	16(5.3)	16(6.1)	0(0.0)

3. 인터넷 육아사이트 이용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인터넷 육아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가장 많이 나온 문제점으로는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3명으로 전체 응답의 27.9%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육아와 관련된 정보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정보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부족”이 29명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사이트마다 다르거나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음”(27명)이 3위였고 “상담에 대한 불만”(23명)이 4위로 상담의 답변이 늦거나 형식적

인 답변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 외 광고가 많다는 “상업성으로 인한 불편”(17명), “회원제로 인한 불만”(4명)이 있었고 기타로 검색기능이 없어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 인터넷 육아사이트 이용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총 응답수=154)

내용	빈도(%)
1.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	43(27.9)
2. 정보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부족	29(18.8)
3.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음	27(17.5)
4. 상담에 대한 불만	23(14.9)
5. 상업성으로 인한 불편	17(11.0)
6. 회원제로 인한 불만	11(7.1)
7. 기타	4(2.6)

4. 인터넷으로 제공받고 싶은 육아정보

인터넷으로 제공받고 싶은 육아정보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아이의 월령에 맞는 놀이와 교육”으로 65명의 대상자가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수의 30.8%를 차지하였다<표 4>. 주 내용은 장난감 선택이나 두뇌개발을 위한 놀이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2위는 “영양”(44명)으로 모유수유나 이유식 등에 대한 정보를 원했으며 3위는 “건강문제와 대처법”(39명)으로 흔한 건강문제의 대처법이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른 부모의 경험담”(10명), “아이 돌보는 방법”(38명), “물품교환”(7명)이 있었으며 기타로 탁아소나 놀이방과 같은 육아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 인터넷으로 제공받고 싶은 육아정보 (총 응답수=211)

내용	빈도(%)
1. 아이의 월령에 맞는 놀이와 교육	65(30.8)
2. 영양	44(20.9)
3. 건강문제와 그 대처법	39(18.5)
4. 아이의 월령에 따른 발달	33(15.6)
5. 다른 부모의 경험담	10(4.7)
6. 아이 돌보는 방법	8(3.8)
7. 물품교환	7(3.3)
8. 기타	5(2.4)

5. 인터넷으로 상담 받고 싶은 육아관련 내용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넷으로 상담 받고 싶은 육아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건강문제”(62명)로 질병이나 응급상황, 알레르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의 월령에 따른 발달 및 행동”(60명)이 2위를, “교육과 놀이”(30명)가 3위로 나타났다. 그 외 “아이의 영양”(22명), “아기 돌보는 방법”(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인터넷으로 상담 받고 싶은 육아관련 내용 (총 응답수=184)

내용	빈도(%)
1. 건강문제	62(34.8)
2. 아이의 월령에 따른 발달 및 행동	60(32.6)
3. 교육과 놀이	30(16.3)
4. 아이의 영양	22(12.0)
5. 아기 돌보는 방법	9(4.9)

V. 논 의

분만 후 어머니는 동통, 상처치유, 호르몬의 변화, 수면장애,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스트레스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울 느끼게 된다(이경혜 등, 1997). 또한 지지체계가 부족하거나 학습의 기회가 적어 초산모가 어머니 역할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가질 경우 이는 신생아에게 부적절한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신생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하기 위한 간호교육 및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구현영과 문영임, 1998).

이혜경(1992)은 새로 되는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것에 당황함과 긴장을 느끼며 대부분의 어머니가 퇴원 후 4주 동안 신생아 양육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진다고 하였고, 최근의 연구들도 영유아기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경자, 1997; 조결자 등, 1997).

최근의 어머니들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on-line)과 병원(off-line)에서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육아관련 정보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유용했던 내용으로는 식이와 영양, 성장과 발달, 부모간의 지지가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다. 국내 45개의 육아포털 사이트를 분석한 이자형 등(2001)의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이트가 식이와 영양, 성장 발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부모간의 지지에 대한 내용은 분석되지 않았는데 McKenna와 Green(2002)이 제안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회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이를 활용하고 이러한 온라인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경험과 목적을 공유하면서 서로 지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지지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하겠다. 인터넷에서는 이메일이나 게시

판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면대면이나 전화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문가와 대상자간 혹은 대상자들 사이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육아사이트 이용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인터넷 육아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피상적이라는 것과 정보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것으로 전체 응답의 절반정도(46.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영철과 박현애(2000)가 제시한 평가준거의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이렇듯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의 범위와 깊이, 출처, 신뢰성, 저자의 권위성 등은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많은 육아관련 사이트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가 언급한 사이트의 내용이 피상적인 주된 이유는 초기의 내용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갱신(upgrade)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방문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상담이 형식적이거나 성의 없는 답변과 같은 상담에 대한 불만이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자형 등(2001)도 많은 육아사이트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듯이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제공받고 싶은 육아정보로는 아이의 놀이와 교육과 영양이 각각 1위와 2위였는데 이는 유경희(2000)의 연구에서 20여개 순위 중 신생아와 영아 육아에 대한 부모의 교육 요구도에서 영양섭취(4위), 성장 및 발달, 놀이(5위)가 상위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아이돌보기에 대한 정보가 상위에 들지 않은 것은 아기돌보기 정보의 경우

그 내용이 일관되므로 굳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육아책자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그 요구가 낮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놀이나 교육 등은 수많은 광고와 정보 속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체계적인 안내의 측면에서 정보를 요구하였다고 사료된다.

인터넷으로 상담 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건강문제와 아이의 발달 및 행동, 교육과 놀이에 관련된 것 순이었다. 영아양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요구를 조사한 한경자(1997)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 예방접종, 사고예방 순으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본 연구는 당면한 건강문제나 응급처치와 같은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 상담받기를 원하였다. 송지호 등(2001)은 전화상담 내용의 분석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는 질병이나 이상징후를 구별하는 방법, 증상발현시의 관리법, 질병 및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특성 및 기준, 각 성장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와 간호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자주 상담이 의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상담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 및 상담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으로 육아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어머니들은 이전의 육아서적이나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얻었던 어머니들과는 다른 내용의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하고 대량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용면에서 좀 더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방향적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쌍방향적인 지지적 측면도 고려하여 웹기반 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탈피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반영하여 내용을 계속 갱신하여야 지속적이고 일

관된 정보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웹을 기반으로 한 육아관련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연구가 시행 될 필요가 있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관련 웹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어머니 중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어머니로서 일개 병원의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어머니 22명과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이키우기 동호회 회원 중 온라인 설문지에 응해 준 어머니 175명이었다.

인터넷의 육아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on-line상으로 프로그램 된 설문지 공지하였고 off-line상으로 직접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선택형 12문항과 개방형 질문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응답자는 157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특성, 육아사이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아관련 사이트에서 유용했던 내용을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 식이와 영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24.4%) 그 다음으로 성장과 발달(21.1%), 부모간의 지지(16.8%)의 순이었다.
2. 인터넷 육아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으로는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이라는

것이 43명으로 전체 응답의 27.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문제점으로 “정보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부족”이 29명,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음”(27명), “상담에 대한 불만”(23명), “상업성으로 인한 불편”(17명), “회원제로 인한 불만”(4명) 순이었다.

3. 인터넷으로 제공받고 싶은 육아정보에 대해서는 1위가 “아이의 월령에 맞는 놀이와 교육”으로 6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응답수의 30.8%를 차지하였다. 2위는 “영양”(44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와 대처법”(39명), “다른 부모의 경험담”(10명), “아이 돌보는 방법”(38명), “물품교환”(7명) 순이었다.
4. 인터넷으로 상담 받고 싶은 육아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건강문제”(62명)로 질병이나 응급상황, 알레르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의 월령에 따른 발달 및 행동”(60명), “교육과 놀이”(30명), “아이의 영양”(22명), “아기 돌보는 방법”(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어머니의 요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이의 월령에 맞는 놀이와 교육, 영양, 건강문제와 대처법, 다른 부모의 경험담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고 육아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제공하는 정보의 깊이와 신뢰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히 증가하는 육아관련 사이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아동의 건강증진과 어머니역할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육아와 관련된 정보제공, 교육 및 지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제 언

1.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빈도 높은 육아관련 요구 내용을 반영하며 기존의 수많은 육아관련 사이트와 차별화 된 초산모 대상의 구체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그 결과 또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2.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어머니에게 사이트의 정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상의 육아관련 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준거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대상자가 오프라인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대상자를 비슷하게 맞추어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이용과 제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송지호, 한경자, 오가실, 조결자, 이자형, 박은숙, 조갑출, 탁영란, 안영미 (2001). 전화 아기건강상담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육아문제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7(2), 245-257.
- 심영숙, 서영미, 권인수 (1998). 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 아동간호학회지, 4(2), 231-244.
- 유경희 (2000). 아동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요구도. 대한간호학회지, 30(4), 905-916.
-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미라, 이영숙, 이혜경, 정은숙,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7). 여성건강간호학. 서울: 현문사.
- 이경혜 (2001). 사회변화와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43-55.

- 이자형 (1996).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간호과학, 8(1), 97-108
- 이자형, 이정은, 오진아, 김혜영, 김경원, 박영애, 김성희, 김지현, 정향진, 천기정 (2001). 인터넷 육아전문 사이트의 육아정보 분석.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56-72.
-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
- 이혜란 (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박정숙, 김은숙 (1999). 산 후 6개월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요구-후향적 방법. 대한간호학회지, 29(3), 507-517.
- 정영철, 박현애 (2000).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평가 체계 개발. 대한의료정보학회지, 6(1), 53-66.
- 조결자, 정연, 이군자 (1997).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와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3(1), 5-18.
- 하유정, 김현자, 김명희, 최보율, 김미경 (2001).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 어린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 53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153-154.
- 한경자 (1997).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228-242.
-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1994). 일개 군 지역의 가정간호 요구조사. 간호학회지, 24(3), 484-498.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의 통계보고서(www.nic.or.kr)
- Fenwick, J. Barclay, L., & Schmied, V. (2001). 'Chatting': an important clinical tool in facilitating mothering in neonatal nurser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3(5), 583-593.
- LaCoursiere, S. P. (2001). A theory of online social suppor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4(1), 60-77.
- Lorig, K. R., Laurent, D. D., Deyo, R. A., Marnell, M. E., Minor, M. A., & Ritter, P. L. (2002). Can a back pain e-mail discussion group improve health status and lower health care costs?: a randomized study. Archives Internal Medicine, 162(7), 792-796.
- McKenna, K. Y. A., & Green, A. S. (2002). Virtual group dynamics; special issue-group dynamics and the internet. Group Dynamics, 6(1), 116-127.
- McKim, M. K. (1987). Transition to what? New parents' problems in the first year. Family Relations. 36, 22-25.

ABSTRACT

Key Words : Internet, Child care information need

**The Study on the Mother's Needs for Information
of the Child Care Web Sites**

Kim, Jeong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a mother when getting the information from the child care web si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and constituted of 157 mothers who had neonates and infancy. All the mothers could use the internet. On-line subjects were 135 mothers who were the members of "Child Rearing" circle of internet portal site, Daum (www.daum.net) and off-line subjects were 22 mothers who visited the pediatric outpatient department.

The instrument had 15 items about needs for information of the child care web sites. 12 items were multiple choice-questions and 3 items were open questions.

In data analysis, SPSSWIN 10.0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ost useful web content that mothers represented was food and nutrition(24.4%)

and the other rated as following order; growth and development(21.1%), supports among parents(16.8%).

2. The most great web problem that mothers represented was depth of content(43 people) and the other rated as following order; objectivity, specialty and reliability of content(29 people), no problems (23 people), too much advertisements(17 people), obligation on member(4 people).
3. Mothers represented the highest information needs about play and education(65 people) and the other rated as following order; nutrition(44 people), managements of common health problems(39 people), experiences of other parents(10 people), child caring methods (38 people), exchanges of things(7 people).
4. Mothers represented the highest consultation needs about common health problem (62 people) and the other rated as following order; growth and activity(60 people), play and education(30 people), nutrition(22 people), child caring methods(9 people).

* Nursing Department, Kyungbok College